
V

자봉도





여수시
변천사

V. 자봉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선착장간 거리

자봉도 선착장에서 직선거리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17.2km, 돌산 군내 선착장까지 4.15km, 개도 화산선착장까지 1.6km, 월호도 선착장까지는 3.5km 떨어져 있다.



자봉도 선착장



대합실

2) 인구현황

자봉도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26세대, 46명이 살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현황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26	46	23	23



자봉마을 전경

3) 토지현황

자봉도의 총면적은 0.412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6.14km이다. 전답은 0.154km², 임야 0.24km², 대지 0.008km², 기타 0.01km²이다.

토지 현황 (km ²)					
면적	전답	임야	대지	기타	해안선
0.412	0.154	0.24	0.008	0.01	6.14km



자봉도 전경

4) 교육기관

(1) 화정초등학교 자봉분교장

화정국민학교 자봉분교는 1966년 11월 8일에 설립 인가되어 1967년 3월 1일 화정면 월호리(자봉도는 월호리에 속하는 섬이다) 456번지에 4년제로 개교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 6년제로 인가되었다가 2001년 3월 1일 폐교하였다.

- | 연혁 |
- 1966. 06. 22. 화정국민학교 자봉단급분실 개설
 - 1966. 11. 08. 화정국민학교 자봉분교장 설치 인가
 - 1967. 03. 01. 화정국민학교 자봉분교장 개교 4년제
 - 1970. 03. 01. 6년제 인가
 - 1996. 03. 01. 화정초등학교 자봉분교장으로 명칭 변경
 - 2001. 03. 01. 폐교



자봉분교



폐교 안내문

5) 사회조직

(1) 사회조직

자봉도의 사회조직으로는 자봉개발 위원회, 자봉노인회, 자봉부녀회 등이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활동이 크게 줄었다.



경로당 (마을회관)

(2) 어촌계

자봉도 어촌계는 설립 이후 1980~1990년대에 최대 50여 명 이상의 어촌계원 수를 보유 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현재(2021년 7월 기준) 약 18명의 어촌계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어촌계원 대부분이 어농복합인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5명, 60대가 4명이며, 이외에 70대,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촌계원 구성원이 상당히 노령화되었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생산물은 공동어장에서 바지락, 톳, 미역,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여 어촌계 수익을 내고 있으며, 패류 어장에서도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주변 어장에서 어촌계원 각각의 어업은 통발, 자망 등의 방법으로 어류 등을 잡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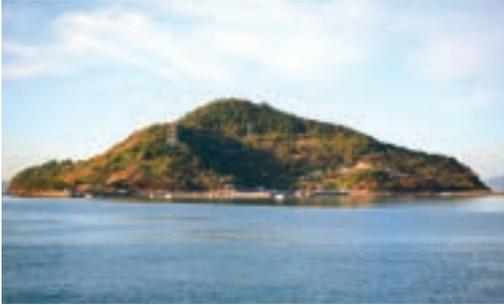


통발어구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자봉도는 섬중앙에 위치한 최고봉(150m)을 중심으로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있다가 해안 부근에서 급애를 이루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단조로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다.



자봉도



탄섬

(1) 육계도와 육계사주

자봉도에 연결된 탄섬은 육계도로서 육계사주에 의해 본섬과 연결된다. 육계사주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페블(pebble)급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육계사주



육계사주

(2) 구상풍화

섬 내는 안산암질 암석이 구상풍화된 핵석(core stone)들이 군데군데 관찰된다. 이는 격자상으로 균열된 절리 틈새에 지표수가 유입된 후 절리면의 모서리가 풍화되어 둥글게 다듬어진 암석으로 추정된다.



산정부의 구상풍화된 암석들



산정부의 구상풍화된 암석들

(3) 암석해안

자봉도와 판섬은 해안에 이르러 급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반암이 풍화침식에 노출된 암석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해식애를 비롯한 해안침식지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식애에서 분리된 거력(boulder)들이 해안가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섬의 암석해안



자봉도의 암석해안

2) 지질

자봉도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토양

구릉지를 중심으로 안산암질 응회암 풍화토가 잔적되어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록부와 곡두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붕적층을 이루고 있다.

4) 기후

여수반도의 일원은 연중 쿠로시오 해류와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성기후형인 남해안형에 속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가장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여수의 연평균 기온은 13.9°C로써 편차는 0.5°C이다. 월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면 최한월은 1월로써 1.6°C이며 2월도 2.8°C에 불과하다. 3월의 4.3°C 상승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3.2~5.6°C 상승하여 8월에 25.9°C의 최고기온을 기록한다. 반면에 9월의 3.8°C 하강을 시작으로 매월 5.2~6.4°C 하강하여 12월에는 4.4°C에 이른다. 동계에 월평균 기온의 편차가 높아 1월은 1.7°C, 2월에는 1.5°C를 보인다.

5) 주변해양조류

여수 인근 지역의 평균 해수면은 약 1.87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3.94m, 저조위는 -0.2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8.8°C, 최저온도는 8.3°C, 최고온도는 27.7°C로 해수온도 변동폭은 약 19.4°C이다. 연평균 염분농도는 29.2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27.7~30.4PSU이다.

6) 주변환경

자봉도는 제도과 개도, 돌산읍 송도 사이에 있으며, 서쪽의 본섬과 동쪽의 판섬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은 편이며, 남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하다. 해안은 갯벌이 넓게 발달하였으며, 서쪽 큰 섬이 동쪽의 판섬과 육계사주로 연결되어 있다.

7) 주변도서

자봉도의 동쪽으로 제도가 있고, 서남쪽에서 남쪽으로는 개도가 있다. 서북쪽으로 백야도가 있고, 동북쪽에 돌산 송도가 있으며, 동쪽에는 화태도와 월호도가 있다.

다. 식생과 생태¹⁾

1) 식물 식생

(1) 자생식물 및 특산종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식생 조사를 하는 경우 4계절에 고루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 자료가 작성되어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기간도 짧고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방문도 제한되어 조사시기가 계절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자봉도에 자생하는 늘푸른 넓은잎 수종은 주변의 섬들과 같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송악, 용가시덩굴, 도깨비고비 등이 출현하고 있다. 자봉도의 경우 남면 지역과 가까운 관계로 식생은 남면지역의 식생에 가깝다. 까마귀쪽나무나 우묵사스레피는 다른 화정면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자봉도와 사도에 몇 개체 드물게 보인다. 이는 식물 기후환경이 사도와 자봉도를 기점으로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묵사스레피



오동나무



분홍질레



해국

(2) 주요 식생 및 군락지

자봉도의 주요 식생은 섬 전체적으로 넓게 곰솔군락이고 널리 분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떨기나무 넓은잎 수종인 소사나무군락도 분포한다.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에는 칩군락, 환삼덩굴군락, 소나무군락, 느릅나무군락 등이 출현하였다. 육지 지역의 최근 휴경지에는 주홍서나물과 명아주, 개망초, 여뀌가 군락을 이루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 about 전남의 섬(<http://islands.jeonnam.go.kr/>)



싸리



장구밥나무



꾸지뽕나무



도깨비고비

자봉도에는 바닷가에서 잘 자라지 않는 오동나무군락이 있다. 원추리군락과 분홍필레군락, 해국군락도 있다. 골목골목과 인근 야산 길가에는 장딸기가 지천이고 띠(뽕기)가 유달리 많다. 자봉도에 가면 누구라도 어렸을 적에 뽕기를 뽑아서 팬티허리춤에 숨겨왔던 추억을 회상할 것이다.

화정면 지역은 오래전부터 김양식을 하면서 김발장을 만드는 재료로 ‘띠’를 사용했다.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김작업을 쉬는 여름에는 주변의 띠밭을 돌면서 발장을 만들 띠를 채취했다. 당연히 띠는 씨가 마르는 상황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 김양식이 쇠퇴하면서 띠의 효용은 줄어들었다. 이후 다른 지역은 소가 많아서 소 꼴로 띠를 무작위로 채취했지만, 자봉도는 소가 없어서(20여 년 전에 한 마리 있기는 했다) 띠가 많이 번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싸리, 족제비고사리, 예덕나무군락은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궁이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싸리 같은 경우는 빗자루나 울타리목 등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잘렸다. 특히 땀감으로 더없이 좋았던 까닭에 남아나지를 못했다. 푸나무를 그대로 땀감으로 쓸 수 있으면서 잡목이라 정부나 산주의 단속에서도 자유로웠던 까닭에 가장 좋은 땀감거리였다. 그런 까닭에 뒷산에 싸리나 족제비싸리가 남아나지 못했다. 우리의 부엌이 연탄으로 변화되면서 땀감으로써의 역할을 다한 싸리가 그 영역을 넓혀 갔을 것이다. 번식력도 좋고 기후조건도 맞을 뿐 아니라 척박한 땅 등 어디서라도 잘 자라는 싸리 군락지들이 집단으로 생겼다. 특히 도로 공사 벽면 등에 오리나무를 심던 것이 지금은 금계국이나 수레국화, 루드베키아가 심어지면서 그사이 경쟁에서 이긴 싸리가 군락을 이루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3) 식물상

이 지역은 늘푸른 수종으로 후박나무, 다정큼나무, 곰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모람, 마삭줄 등이 출현한다. 떨기나무로는 족제비싸리, 개암나무, 길마가지나무, 고추나무, 굴피나무, 굴참나무, 꾸지뽕나무, 누리장나무, 느티나무, 노린재나무, 두릅나무, 대팻집나무, 털팽나무, 닥나무, 때죽나무, 딱총나무, 돌배나무, 말오줌때나무, 비수리, 배롱나무, 비목나무, 병꽃나무, 붉나무, 싸리나무, 산초, 생강나무, 상동나무, 사방오리, 소사나무, 산벚나무, 소태나무, 산복사나무, 이팝나무, 아까시나무, 작살나무, 예덕나무, 장구밥나무, 졸참나무, 조록싸리, 자귀나무, 진달래, 떡갈나무, 참나무류, 천선과, 층층나무, 폭나무, 푸조나무, 팽나무, 화살나무 등이 자생한다.

초본류는 가막사리, 그늘사초, 개망초, 파리, 꽃향유, 까치수영, 괴불주머니, 골무꽃, 개미자리, 괴불주머니, 골등골나물, 고마리, 고추나물, 띠, 도깨비바늘, 도깨비고비, 닭의장풀, 담쟁이덩굴, 맥문동, 머느리밥풀, 매듭풀, 명석딸기, 망초, 발풀고사리, 대극, 띠, 도둑놈의갈고리, 땅비싸리, 보춘화, 비름, 뱀딸기, 봉의꼬리, 바랭이, 비수리, 방동사니, 방기, 바위손, 산박하, 솔새, 쑥, 쇠뜨기, 실고사리, 쇠비름, 새, 십자고사리, 솔이끼, 세뿔석위, 삼주, 실새풀, 양지꽃, 여뀌, 이스라지, 옥녀꽃대, 엉겅퀴, 억새, 애기나리, 잔대, 진득찰, 잔디, 제비꽃, 쥐꼬리망초, 쥐꼬리새풀, 질경이, 주름조개풀, 좁가지풀, 장딸기, 자귀풀, 짚신나물, 자란, 전호, 참취, 참나리, 천문동, 토끼풀, 파리풀, 타래난초, 한련초 등이 관찰되었다.

덩굴식물로는 땀덩이덩굴, 박주가리, 환삼덩굴, 마삭줄, 노박덩굴, 하늘타리, 담쟁이덩굴, 칩덩굴이 관찰되었다.

바닷가에는 갯까치수영, 참나리, 하늘말나리, 용가시덩굴, 순비기, 천문동, 배풍등 등의 인근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식생들이 출현한다.

인공식재된 식생에는 배롱나무, 비파, 송엽국이 출현하며, 열대식물인 올리브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

3) 육상동물

자봉도의 동물상은 인근의 개도와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로는 도롱뇽,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등 양서류 4종과 도마뱀, 유혈목이, 누룩뱀, 능구렁이, 쇠살무사, 살무사 등 파충류 6종이며 어류로는 붕어, 미꾸리, 송사리 3종이다. 곤충류는 각시메뚜기, 고추잠자리, 고추좀잠자리, 깃동잠자리, 남방노랑나비, 남방제비나비, 네발나비, 노랑나비, 뽕장잠자리, 무늬박이제비나비, 물결나비, 밀잠자리, 방아깨비, 배추흰나비, 산잠자리, 산호랑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왕잠자리, 제일줄나비, 줄점팔랑나비, 청띠제비나비, 하나잠자리, 호랑나비, 홍점알락나비 등이 서식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류는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조롱이, 황조롱이, 꿩, 꼬마물떼새, 노랑발도요, 꿩이갈매기, 재갈매기, 노랑발갈매기, 멧비둘기, 쇠딱다구리, 제비, 귀제비,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검은턱할미새, 백할미새, 큰발종다리, hing새, 발종다리, 직박구리, 때까치, 딱새, 검은딱새, 바다직박구리, 큰유리새, 호랑지빠귀, 되지빠귀, 흰배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휘파람새, 솔새사촌, 노랑눈썹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멧새, 노랑턱멧새, 족새, 되새, 방울새, 밀화부리, 참새, 피꼬리, 어치, 물까치,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이 서식할 것으로 여겨진다.

포유류는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두더지, 땃쥐, 멧밭쥐, 삵, 수달, 염소, 오소리, 족제비, 집쥐, 청설모 등이다.

4) 해양생물

조간대 암반 조사 결과 총 50종이 출현하였으며 해면동물 1종, 자포동물 3종, 연체동물 35종, 환형동물 1종, 절지동물 8종, 극피동물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현종들은 모두 내만성 암반 및 자갈 해안에 흔히 분포하는 종들이었으며, 출현종들의 생물량은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현한 종들은 애기삿갓조개, 애기배말 등을 비롯한 삿갓조개류와 총알고둥, 큰뺨고둥 등의 복족류, 진주담치, 격판담치와 같은 이매패류 연체동물 종들과 주황해변해면, 갈색꽃해면 말미잘, 거북손 등의 고착성 무척추동물들이었다.

진흙이 섞인 자갈해안에서는 갯고둥, 검은줄좁쌀무늬고둥, 대수리 등의 복족류 연체동물들과 납작게, 풀게, 무늬발게 등의 이동성 게류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수리와 갯고둥은 우점을 하고 있었다.

해조류는 총 25종류로 녹조류 4종, 갈조류 7종, 홍조류 14종이었다. 상부조간대에서 지충이, 애기우뭇가사리가 우점하였다. 구멍갈파래와 창자파래가 출현하였으며, 삿갓홀파래, 고등옷대마디말, 긴털실말은 조수웅덩이에서 매우 드물게 출현하였다. 중부조간대에는 불등풀가사리가 나타났으며, 이곳 역시 상부조간대에서 출현하는 모든 종이 출현하였다. 연골분홍딱지는 중부 조간대 암반 표면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었다.

하부조간대에는 지충이와 구멍갈파래가 우점하였으며, 바위수염, 패, 참산호말, 작은구슬산호말이 출현하였다. 그외 갈조류 고리매, 툫, 미역, 홍조류 우뭇가사리, 흑돌잎, 불등풀가사리, 참풀가사리, 애기가시덤불, 사이다가시우무, 돌가사리, 애기돌가사리, 검은서실, 타래서실 등은 중부에서 하부조간대에 드물게 출현하였다.

해초류인 거머리말(잘피류)가 군락지가 자봉항 내와 그 주변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해조류 (지충이)



해초류 (거머리말)

5) 수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공유수면이나 인접구간 행위제한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여수시는 현재 육지부 39.8km², 해수면 372.5km²로 전체 412.3km²가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가막만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섬의 산봉우리가 하나이고 섬 모양이 큰 새가 앉아 있는 형세라 하여 ‘자리 좌(座)’자, ‘봉새 봉(鳳)’자를 써 좌봉도(座鳳島)라 불렀다고 한다.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봉황새 중에서도 붉은새가 길조라하여 자봉(紫烽)이라 고쳐 부르다가 한일합방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쓰고 부르기 쉽도록 ‘자봉도(自峰島)’로 고쳤다고 여천군 마을유래지(1991)에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문헌상으로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864년 『대동지지(大東地志)』 전라도 순천도서조를 비롯해 「영남호남연해형편도」 등의 고지도에서 자봉도(自峯島)로 표기되어 있어 잘못된 유래로 보인다.

1872년 제작된 「순천방답진지도」에는 “자봉도는 방답진으로부터 물길로 15리 떨어져 있고, 수심은 30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99년 『여산지』에는 “자봉도는 서남쪽 10리 수태도 서쪽에 있으며 주위는 3리이다. 그 산의 생김새가 모두 정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96년에는 돌산군 설립 당시에는 화개면 월호리 자봉마을이었으나, 1914년 여수군 설립으로 화정면 월호리 자봉마을이 되었다. 1949년 여천군이 분리되면서 여천군에 속하였다가 1998년 3여 통합으로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에 속하게 되었다.



순천방답진지도



영남호남연해형편도

나. 마을유래

임진왜란 당시 해주오씨(海州吳氏)가 피난길에 정착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오지만, 그 연대와 경유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광산김씨(光山金氏) 김지열 일가가 입향



자봉마을

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창원황씨(昌源黃氏), 전주이씨(全州李氏) 등이 차례로 입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사건·사고

1) 밀수용 지하터널

1975년 6월 자봉도에 밀수품 은닉을 위해 만든 지하터널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면서 큰 뉴스가 되었다. 밀수선이 자봉도 부근 바다에 투하한 라디오 등의 밀수품을 건져 이 터널에 숨겼다가 다른 배에 실어 육지로 운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선장을 비롯해 관련자 수명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당시에 지하터널을 뚫은 것이 아니라 판섬에 있던 해안동굴에 밀수품을 숨겨 놓은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 (1975.10.13. 7면 기사)

라.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자봉도요망(自峰島瞭望)²⁾

화정면 월호리 산 17번지 일원의 북위 34° 35′ 34.71″ 동경 127° 41′ 08.47″ 해발 153.6m인 자봉산 큰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천왕산 아래로 요망을 관장 하였던 방답진과 송도가 있고, 남쪽에 월호도, 남서쪽으로 개도가 위치하고, 산정에서는 주변의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순천부지도

자봉도요망은 조선 후기의 지방지도인 「순천부지도」와 「순천방답진지도」에 나타나는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자봉도(自峯島) 산정부에 황색 ‘ㅊ’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자봉도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이라 표기하였다.

요망지가 위치한 정상부는 작은 바위로 둘러싸인 평탄지이다. 주변은 밭으로 경작하다 휴경한 상태로 정상에는 바위를 이용한 자연석재를 쌓은 밑돌의 원형 형태 구조물이 발견되었으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연조 인지는 확실치 않다. 주변은 훼손이 심하여 유적은 찾을 수 없다. 남동쪽 산봉우리 약 10m 지점에 당제를 모시는 바위 제각이 있다. 제각 주위에는 약 200여 년 된 팽나무가 있으며, 이 바위 제각은 인공적으로 다듬은 것처럼 처마식으로 되어 있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방답진 4.2km, 월호도요망 3.7km, 제도요망 3.2km, 개도요망 4.6km, 나발도요망 5.6km, 화태도요망 4.6km, 대두라도요망 5.1km이다.



큰산(당산)



큰산 정상



바위 제각

2) 『여수시 봉수요망유적 기초학술조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9)

3. 섬 생활의 변천

가. 자봉도의 생업

자봉도 역시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보리, 옥수수, 감자, 깨, 고구마, 양파, 콩 등을 수확했다. 마을주민이 크게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집 근처와 탄점으로 이어지는 육계사주 주변을 제외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 대부분 묵전이 되었다. 보리는 농사짓기가 너무 번거로워 짓지 않고,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가 농작물을 파헤쳐 먹어버리자 고구마 등의 농사는 거의 짓지 않고 있다. 연근해에서는 주로 멸치, 조기 등이 잡히며, 김, 바지락, 굴 등이 양식하였다.

자봉도는 수심이 얇고 갯벌이 발달해 김을 양식하기 적합한 섬으로 일찍부터 김양식을 시작하였다. 1940년대 무렵부터 가지가 많은 대나무나 참나무 가지를 묶어 다발로 갯벌에 꽂아 양식하는 쉼 김양식을 시작하였다. 이후 발달한 양식법을 도입하여 1980년대까지 지주식과 부흥식으로 김양식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봉도에 가장 많이 살았던 때 역시 김양식을 하던 때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근의 바다가 점점 오염되자 김양식을 그만두고, 다시마와 굴을 양식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홍합양식도 몇 년 했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아 그만두었고, 1990년대 후반에 가두리 양식을 시작하였다. 4~5가구가 가두리 양식을 했는데 성황일 때는 양식장 주변에서 손맛을 즐기려는 낚시꾼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다. 그나마도 수익성이 떨어지자 지금은 한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그만두었다.



김양식 도구



가두리 양식

고대구리 어업을 하던 시절에는 젊은 사람들도 제법 있었지만, 지금은 배를 감척하고 어장이 신통치 않자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섬을 떠나고 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 그마저도 고령화로 인해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대어섯 가구가 통발 어업을 하고, 자망어업(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해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2가구 정도가 한다. 나머지 주민들은 바닷가에서 고동이나 미역 등을 채취하는 정도이다.

나. 자봉도의 생활문화공간

자봉도는 이번 조사 대상 도서 중에서 추도와 소여자도 다음으로 작은 섬이다. 그래서인지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17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하루에 배를 2번(주말과 공휴일에는 3번)밖에 운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다가 여객선이 자봉도를 경유하는 방식도 복잡하다.

새벽 6시 10분에 여수를 출발하는 배는 제도와 개도를 거쳐 금오도에 도착해 돌아오는 길에 자봉도에 들리기 때문에 2시간이나 배를 타야 한다.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하는 배는 가는 길에 자봉도를 경유하지만, 나오는 길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수에 돌아가기 위해서 1시간 30분이나 배를 타야 하므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나 자봉도 주민들이 아침 배로 여수에 나와 일을 보고 오후 배로 섬에 들어갈 때는 배를 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다.



한려페리9호

여객선터미널을 출발해 2시간이나 걸려 자봉도에 도착하면 선착장이 있는 곳이 육계사 주로 연결된 뚝섬이다. 마을의 당제를 모시는 당주에게 이곳의 해산물 채취권을 주었다고 한다. 섬에 내리자 동네 개들이 짖으면서 반긴다. 육계사주 위에는 홀로 떨어져 있는 집에서 할머니가 나오더니 앞바다에서 고동을 캐고 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조금 외로워 보인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해국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그 모양도 다른 일반적인 해국과 조금 다르다.

해안로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재미있는 간판이 하나 보인다.

“자봉도 주민 100% 성시화 마을”

자봉도 주민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해 개신교인이 되었다는 간판이다. ‘성시화 마을’의 뜻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검색해 보았다.

‘한 도시의 모든 영혼과 물질이 그리스도화 되어 한 도시 전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 지도록 소망을 갖고 노력하는 총체적인 복음화운동’이며,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목회버전이며. 최고의 선교전략’이라고 한다.



성시화마을 간판



마을회관 앞에서 김정오 어촌계장(왼쪽에서 2번째)

자봉도의 모든 주민이 개신교인이 되어 성시화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도서지역에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 섬의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다. ‘성시화 마을’ 간판을 지나면 팔각정과 운동기구, 마을회관이 보인다. 자봉도는 작은 구멍 가게 하나 없는 섬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날도 마을주민 2명이 마을회관 밖에서 쉬고 있는 것이 보여 다가가 마을에 대해 이것저 것 물어보았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봉도 토박이 김정오 어촌계장(1962년생)이다. 자봉도는 하나의 마을이지만, 그 안에서 4개로 나누었는데 위쪽에 있다 해서 웃물(상촌), 중간에 위치한 중등물(중촌), 해안가에 있는 아랫물(하촌), 동쪽에 새로 터를 잡은 곳을 새터물(신기촌)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지명에서부터 학교, 당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박태선 전도관에 대해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교회와 혼동하다가 이내 기억해 낸다. 김정오 어촌계장 집 뒤에 박태선 전도관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자봉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전도관을 다녔는데 박태선 교주가 부천에서 큰 전도관을 세우자 자봉도에서도 6가구가 그를 따라갔으며 성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대화가 끝나고 김정오 어촌계장이 알려준 교회터로 가보았다. 지금은 흔적만 남고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박태선 전도관 터



자봉교회

마을 뒷산에 있는 당산에 올라가기로 하고 교회를 지난다. 여수의 섬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인데 특이하게도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이다. 이름도 “신바람 자봉교회”다. 예전에는 자봉교회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뀐 것이다. 간판 옆에 붙어있는 “낙도 사랑의 집짓기” 안내판을 보니 ‘신바람낙도선교회’에서 지원하여 수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름이 바뀐 것으로 짐작된다. 교회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집들도 신바람낙도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수리하였다.

김정오 어촌계장이 길이 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풀이 자라서 길을 찾을 수 없어 풀숲을 헤치면서 올라갔다. 경사가 급한 편이라 힘들게 헤맸는데 다행히 철타를 지나 약간 더 올라가니 길을 찾을 수 있어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산 정상 바로 아래에 거대한 바위 몇 개가 사람이 지나가는 문을 만들어 놓았다. 이곳이 자봉도 사람들이 당제를 지낸 바위제각이다. 바로 위 정상에는 조선시대 요망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정상에서 내려가다 보니 중간에 올라왔던 길 반대편에도 길이 있어 따라가니 해수담수화 시설과 자봉분교가 연달아 나온다. 처음부터 학교에서 올라갔으면 수풀을 헤치지도, 길을 찾아 헤매지도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막급이다.

화정초등학교 자봉분교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4년제로 개교하여 5학년과 6학년이 되면 인근의 월호초등학교에 가서 다녀야 했다. 하지만 풍량이 심하면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6년제로 인가되었다. 2001년에 폐교되었으니 20년이 넘었는데 건물이나 운동장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마을주민들이 꾸준히 관리하는 모양이었다. 녹이 잔뜩 슬어있는 철제 미끄럼틀, 이승복 어린이상, 책읽는 소녀상 등이 이곳에 학교임을 알려준다. 정문 기둥에 특이한 이름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중 / 김우효순 / 1980. 7”

자봉분교에 기부한 김우효순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 새긴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름은 ‘김또효순’이라고 한다. 이름을 부를 때는 ‘또’라고 하지만, ‘또’라는 한자가 없어서 기록할 때에는 한자 ‘또 우(又)’자를 사용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자봉분교 기증

마을로 내려와 『여수시의 문화유적 2000』에 나와 있는 19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황양수 가옥을 찾아보았다. 주소지로 표시된 자봉리 567번지로 가보았으나, 주변에 있는 건물의 외형이 설명이나 도면과 많이 달라서 개축을 했거나 변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섬으로 가기 위해 해안로를 따라가니 김정오 어촌계장과 다른 마을주민이 밭에 고추를 심기 위해 지지대를 박고 있다. 자봉도에도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밭작물을 파먹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밭 주변에 그물망을 빙빙 둘러놓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고구마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마늘이나 고추 등을 주로 심는다고 한다. 판섬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상바구와 선바구가 있다. 예전에 산이 별거숭이였을 때는 잘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 보이지 않는다.

판섬 동쪽 해안에는 피난굴이 있다. 1970년대 밀수꾼들이 이 동굴에 밀수품을 몰래 숨겨 놓았다가 뒤에 몰래 찾아갔다고 하는데 뉴스에는 밀수를 위해 지하터널을 뚫은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했다고 한다.



판섬

다. 선박

자봉도에서의 어선 현황은 1997년 말 기준으로 총 30척으로 5톤 미만 26척, 무동력선은 4척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7월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총 4척으로 모두 5톤 미만이다. 1997년 말 기준대비 26척이 감척되어 86.6%의 감척비율이 조사되어 이번 조사에서 감척비율이 가장 높은 도서이다.

자봉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은 여수에서 개도 항로의 중간 기착지이다. 1962년 10월에 질자호가 취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63년 3월에는 여수에서 출발하여 백야도, 개도, 자봉도, 월호도를 거쳐 남면 화태리, 송고, 함구미 방면으로 운항하는 창운호가 취항하였다. 1975년 9월에는 남면에서 출발하여 초포, 황금리, 화태도, 월호도, 개도, 제도, 백야도, 여수까지 운항하는 창영호가 취항하고, 2000년대 초부터는 대형 바지형 접안부두가 설치되면서 한려페리호가 여수에서 제도, 자봉도, 개도를 거쳐 남면 금오도까지 이르는 항로를 운행하다가 좌수영해운에서 신아해운으로 해운사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여수에서 제도, 개도, 남면 금오도로 운항하는 한려페리9호가 주중에는 하루 2회, 주말과 휴일에는 3회 운항하고 있다.



한려페리9호



자봉도 어선

라. 자봉도 주민들의 생애사

자봉도 황우웅 노인회장



황우웅 노인회장

자봉도의 황우웅 노인회장은 1947년생으로 올해 나이 75세로 태어난 후 대부분의 세월을 자봉도에서 보냈다. 현재 자봉도에는 20여 호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1970년대 가장 많은 주민이 살았을 때는 50여 호에 300여 명이나 되는 주민이 모여 살던 섬이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회지에서 생활하며, 섬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금은 나이 많은 노인만 남아있어 40여 명의 주민만 사는 실정이다.

자봉도는 예로부터 황씨, 김씨, 이씨 세 성받이가 사는 마을이다. 황우웅 회장의 집안은 창원황씨로 가까운 돌산의 황씨와 일가이며, 화태도의 황씨도 창원황씨 일가이다. 황회장은 1947년에 자봉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되자 돌산도의 군내리 친척 집으로 옮겨가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당시 자봉도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마을의 나이 많은 형들은 2km 정도 떨어진 화정면 개도의 화정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풍랑이 일거나 하면 노를 젓는 나룻배가 위험하여 학교를 쉬어야 하는 날이 많았기에 일제강점기부터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면 개도나 군내리에 방을 얻어서 하숙하거나 자취를 하였다. 부자들은 여수 시내에 방을 얻어 공부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의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있기에는 어려운 일이



월호분교

많아서 수시로 돌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회장의 경우에는 돌산도의 군내리는 마을에서 5km 정도의 거리로 개도보다는 먼 거리였지만 돌보아줄 친척 집이 있어 군내리에서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은 자봉도와 가까운 월호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군내리는 돌산면으로 행정구역이 화정면이 아닌 지

역이라 같은 화정면으로 학교를 옮기라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다니던 군내리의 돌산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5학년 때부터는 월호도로 학교를 옮겨 다니다 월호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이렇게 군내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월호초등학교로 옮겨간 자봉도의 동창생은 5~6명 정도였는데 그중 1명은 여학생이었다.

당시 돌산초등학교 동창생들은 49회(1961년 2월 졸업) 졸업생이었는데 월호초등학교는 몇 회로 졸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월호초등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니 1961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황회장은 월호초등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진학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다. 가장 큰 이유는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같은 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마차까지여서 아쉬움도 없었다. 자봉도에서 가사를 도우며 방위 소집을 받을 때까지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다. 당시 황회장의 집에는 스무 마지기(2,000평)나 되는 밭이 있었는데 농사짓기에 적지 않은 크기였다. 집안일은 밭농사도 있었지만, 섬이라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많았고 어울리는 친구들도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 시기에 자봉도에서 김 양식이 성행하였다. 더군다나 자봉도 김은 인기가 좋아 여수 시내 어판장에서 가장 높은 단가로 거래가 되었다. 김 생산지는 섬 주변으로 마을 앞바다가 바로 양식장이었다. 지금도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바닷길에 잘피가 많은데 이렇게 잘피가 많은 마을 앞바다 곳곳이 모두 김 양식장이었다. 당시 황회장 집안의 김 생산량은 30~40속을 생산했다. 김은 100장을 한 속이라 하기 때문에 낱장으로 하면 3,000~4,000장의 양이었다.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많은 양이 아니지만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하던 그 시절에는 적지 않은 양

이었다. 김 양식은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달라붙어서 하던 일이었다. 황회장 집도 식구들이 있었지만 부족하여 임금을 주고 인부를 써야만 했다.

20대가 되어 마을 친구들과 함께 방위병으로 배치받아 병역을 마쳤다. 병역이 끝나고 결혼을 하였는데 신부는 남면 금오도 함구미 사람으로 전주이씨 집안이었다. 신부는 총각 시절 마음에 두었던 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중매를 넣어 결혼으로 이어졌다. 당시 황회장의 나이는 25살, 신부는 네 살 어린 21살이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선 처음에는 김 양식이 주 소득이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서 김 작황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바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작황이 나빠지자 김 양식은 고생만 하고 소득이 없는 사업이 되었다. 업종 변경을 고민해야 했는데 돌산의 금천 등지에서 굴 양식으로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나서 굴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변 섬에도 굴 양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며 굴 양식을 배우면서 굴 양식으로 바꾸었고 몇 년 고생하였다. 그럭저럭 초기에는 수익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 벌이는 되질 않았다. 꿈에 부풀었던 굴 양식도 큰 재미를 보질 못했다.

다시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 가두리 양식으로 바꾸어서 가두리에서 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10여 년을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가두리 양식도 고생만 하고 남는 돈이 없었다.

황회장은 자봉도 마을의 어촌계장을 15년이나 맡아 어촌계를 이끌었다. 그 기간에 이장도 5년이나 겸직을 하였다. 자봉도 마을주민의 신뢰를 그만큼 인정받기도 하였고 마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봉도 마을의 노인회장직도 맡고 있다고 한다. 조선 시대나 일제강점기의 경우 마을의 촌장처럼 실질적인 마을의 대표로 오랜 시간을 봉사한 이력이다. 농어촌마을의 이장이나 어촌계장으로 일하기 위해선 이익보다는 자신이 가진 시간과 능력과 정성을 많이 내놓아야만 하는 자리라고 말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내주어야 해서 맡기 어려운 자리면서 주민의 호응을 얻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자봉도 마을에는 다른 섬에 없는 특이 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주민 모두가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 신자들이란 점이다. 황회장도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중이었는데, 먼저 부인이 나가던 중에 황우성이라는 목사님이 섬으로 오면서 목사님과 가까워져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낙도 사랑의 집짓기

이렇게 변한 요인을 알아보니 섬으로 선교 활동을 나왔던 순천 거주의 신바람 낙도 선교회라는 교회선교 단체의 지원을 받은 활동이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여수지역의 여러 섬에서 교회가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또래 친구가 없는 노인들에게 교회는 친구도 되어주고, 의지할 만한 가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종교가 주는 위안도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지녔던 생활문화에 종교가 가진 신앙심이 결합하여 마을이 지닌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어 주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자망어업

현재 자봉도 마을주민은 대부분이 고령자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마을에는 통발 어업을 하는 세대가 5가구 정도이고 자망(걸그물)이라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분이 2가구라고 한다. 나머지는 노인세대로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일하는 처지라 생활 형편이 곤궁한 편이란다. 이러한 섬의 환경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섬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오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자봉도 마을에는 실제 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또래 친구들이 5~6명 정도가 자주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발생으로 모이질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마을의 최고령자를 물어보니 할머니 중에는 90대 중반이 있고 남자 노인은 87세 노인이 최고령이란다.

75세의 황회장에게 현재의 섬 생활은 자녀들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 강화된 시의 복지서비스에 다 조금씩 섬 생활에서 얻는 수입을 더하고 노인연금 등을 더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란다. 마을에 사는 노인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섬 생활은 큰돈이 들지 않아 다른 곳으로 떠나지는 않으려 한다. 자봉도 마을의 노인회원이 되기 위해선 65세 이상이면 정식회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 주민이 공동 생활하는 모양새이다.

황회장의 소망을 묻자 건강이 허락하면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 계속 노인회장으로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봉사를 다짐하는 말에서 마을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진다.



마을회관 앞에서 황우웅 회장

4. 자봉도의 민속문화

가. 자봉도의 지명유래



- 웃물(상촌) [마을] : 자봉마을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아랫물(하촌) [마을] : 자봉마을의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다.
- 중등물(중촌) [마을] : 자봉마을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 샛터물(신기촌) [마을] : 자봉마을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새로 터를 만들어 집을 지었다고 한다.



동섬

- 당산나무 [나무] : 자봉도 상봉에 있으며 약 200여 년 된 팽나무로 당제를 모시던 곳이다.
- 서끝밭 [들] : 자봉도 서쪽에 있는 들을 일컫는다.
- 뒷면들 [들] : 자봉마을 북쪽에 있는 들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부른다.
- 당산제각(堂山祭閣) [당] : 자봉도 큰산에 있는 당제를 모시는 바위 제각 주위에는 약 200여 년 된 팽나무가 있다. 이 바위 제각은 인공적으로 다듬은 것처럼 처마식으로 되어 있고, 매년 음력 정월에 일정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마을 안녕을 빌었던 곳이다.
- 무너미(목넘어) [목] : 자봉마을 남서쪽에 있는 자봉도에서 동섬(작은섬)으로 건너가는 바위로 목에 태풍이 불면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곳이다.
- 윗목끝(웃목끄트리) [목] : 자봉마을 서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목으로 그 끝이 움푹 들어가 있다.
- 상바구끝 [목] : 자봉마을 동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목을 말한다.
- 상바구(上岩) [바위] : 판섬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10여 평 정도의 넓고 큰 바위이다. 예로부터 이 바위가 마을의 울안에 들어오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겼다 하며 한때는 이 바위에 울타리를 막아 직접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는 마을에서 상바구가 보이면 마을에 액운이 따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너미



자봉산



홀심여

- 달목곶 [곶] : 자봉마을 동쪽 해안으로 달목은 산자락 끝이 잘록하게 목을 이르는 곳을 말하는 우리말로 여수지역에도 여러 곳에 전해오는 지명이다.
- 자봉산(큰산) [산] : 자봉마을의 바로 뒤에 있는 산으로 당산나무와 바위제각이 있고, 산의 높이는 154m가량이다.
- 홀심여(홀섬여) [여] : 자봉마을 서남쪽에 있는 여로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다.

나. 자봉도의 설화와 민요

1) 상바구 전설

자봉마을 동쪽 판섬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10여 평 정도의 넓고 큰 바위이다. 예로부터 이 바위가 마을의 울안에 들어오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겼다 하며 한때는 이 바위에 울타리를 막아 직접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는 마을에서 상바구가 보이면 마을에 액운이 따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 선바구 전설

상바구가 있는 동쪽 판섬에 있는 바위로 선바구는 높이 8m, 직경 4m 정도의 크기이다.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이 바위와 마주 보는 지역의 아낙들이 선바구를 보고 음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을에서는 힘센 장정들을 모아서 이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온다.

3) 민요

자봉도만의 특별한 민요는 없고, 상여소리와 같은 공통적인 민요가 전해온다.

다. 자봉도의 음식문화

현재 자봉도에서 키우는 주 작물은 고추와 배추, 무, 콩 등이다. 수산물은 주로 낙지, 문어, 갑오징어, 도다리, 개조개 등으로 음식도 이를 활용하여 요리한다. 과거 고구마 농사와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하루 한 끼는 찢 고구마를 먹었고, 보리죽도 자주 먹었으며, 그 외에 툇 90% 정도에 쌀·보리가 10% 정도 들어간 툇밥도 먹었다고 한다. 가사리, 나발초, 미역, 파래도 자주 먹던 음식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주로 쌀밥으로 바뀌었다.

라. 자봉도의 신앙

1) 자봉도 당제

자봉도는 10여 년 전까지 음력 삼월 삼짇날, 마을의 안녕을 빌면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산제는 산신제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당산제의 제장(祭場)은 마을 뒤 큰산에 있는 제각 바위인데 인공으로 다듬은 것처럼 처마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 주위에는 약 200년 된 팽나무가 있다. 본래 당산제는 정월 보름에 지냈으나, 날씨가 너무 추워 3월 삼짇날로 옮겼다고 한다.



바위제각



당숲

지금의 마을회관 앞 해안가에서 해신제 혹은 헌식제 라고 부르던 해안제를 지냈다. 해안제도 본래 설날 그믐날 지냈는데 날씨가 추워서 3월 삼짇날로 옮겼다고 한다.

당주를 뽑을 때는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생기복덕이 맞고, 마을에서 신의가 두터우며 반듯한 사람을 골라 당주로 세웠다. 당주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 돌아가면서 맡았고, 1년 품삯으로 자봉도 앞에 있는 해초와 해산물이 풍부한 동섬의 채취권을 주었다고 한다.

자봉도 당제의 특징은 집집마다 개조개를 30마리씩을 조리하여 당제(해안제) 날 상에 올렸는데 미처 개조개를 준비하지 못한 가구는 마을의 어촌계에서 제명되기도 했다고 한다.

2) 박태선 전도관

1950년대 박태선 장로(교주라고도 부른다)가 설립한 전도관이 자봉도에도 있었다. 당시 주민 과반수가 신도가 되어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한다. 박태선 교주가 경기도 부천 소사읍으로 이사를 간 후, 그곳에서 교세가 확장되면서 지방의 부속 신도들도 소사읍으로 집결하였다. 이때 자봉도의 전도관 신도들도 소사읍으로 전 가족이 이주한 호수가 6호나 되었다고 한다.



박태선 전도관터

3) 자봉교회

화정면 월호리 575번지에 1987년 3월 설립되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로 신바람 낙도선교회에서 지원해 2014년 8월 리모델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1년 현재 최상록 목사가 시무 중이다.



자봉교회